현불논단

천당과 지옥은 우리 안에 있다



주경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오랜 전란에 심신이 지친 일본 무사
禪師를 찾아 문답 나누며 휴식 청해
"천당과 지옥 어디 있냐" 무사 질문
선사 왈 "당신 마음이 천당과 지옥"

불교는 '화합제일'을 근본 두고 중시
상대 대한 이해 · 배려, 화합의 바탕
자그마한 상대적인 박탈감에 집착해
이곳을 지옥으로 생각하면 지옥일 뿐

어떤 사람들이 천당과 지옥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천당과 지옥이 어떻게 다를 것 같아?" 그저 상식적인 대답이 나왔다.

"천당은 무척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고, 지옥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이겠지."

"맞아, 그런데 사실은 천당과 지옥은 같은 곳 이래, 예를 들면 천당과 지옥의 식탁은 하나도 다르지 않고 꼭 같다는 거야. 음식차림도 수저와 제공되는 서비스도 동일한 것이지."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 흔히 표현되는 천당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나 그림들을 보면 천당은 밝고 깨끗하며 아름답고 행복하게 묘사되고, 지옥은 어둡고 더럽고 불과 칼과 각종 고문도구로 극단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표현된다. 그런데 어떻게 천당과 지옥이 동일하단 말인가.

유사한 소재로 일본 스님과 무사의 이야기도 전한다. 무사가 선사(禪師)를 찾아 전쟁과 전투로 지친 심신을 쉬고자 하였다. 선사는 편안한 마음으로 한 잔의 차를 대접하며 무사를 맞이하였다.

마음이 편안해진 무사가 물었다. "스님,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다릅니까?"

선사가 말했다. "지옥과 천당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에 있을 뿐입니다."

무사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고 그 마음은 그대로 선사에게 전해졌다. "지금 당신의 몸과 마음은 편안하고 근심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곳이 바로 천당입니다."

무사가 물었다. "그러면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선사가 갑자기 무사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더해서 그의 가족과 조상들에게 까지 좋지 못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하던 무사는 결국 인내심을 잃고 벌떡 일어나 선사를 향해 칼을 빼들고 말았다. 그 순간 선사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무사에게 들려왔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지옥과 천당이 따로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 지옥과 천당은 분명 별개로 존재할 것이다. 선과 악의 업이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곳, 동일한 환경일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도 천당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지극한 선행을 행한 이들이 가는 천당과 극락이 있을 것이고 극단적인 악행을 행한 악인들이 가는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중간계인 인간 세상에는 지옥과 천당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천당과 지옥이 있을 수 있고, 한 사람의 삶에도 천당과 지옥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천당과 지옥의 식탁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수저가 사람의 팔보다 길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옥의 사람들은 각자 먹으려 하지만 이룰 수 없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천당의 사람들은 서로 먹여주는 까닭에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교는 '화합제일' 을 근본으로 한다. 교단을 뜻하는 '승가(僧伽)' 라는 말도 '화합하는 대중' 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대중이 추구하는 바는 인간 최고의 가치인 열반이며 깨달음이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 공존공생이 화합의 바탕이다. 작은 차이와 차별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마음이 묶이는 순간 자신의 삶에는 서서히 지옥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작은 차별과 차등에 집착해서 이곳을 지옥으로 생각한다면 지옥일 뿐이다. 자기의 마음을 바로 보면 지옥과 천당이 그곳에 있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는 나쁜 행위인줄 알면서도 욕망에 이끌려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잘못의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든 잘못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에 불행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미 어디선가 날아온 불행의 화살을 맞은 것입니다.

불행의 화살을 맞았을 때 어떤 사람은 그 고통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버립니다. 왜 내가 그런 화살을 맞아야 하는지 원인도 생각해보지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맞은 불행의 화살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원인을 분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화살을 맞은 것에 대해 원인 분석도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다면 잘못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계속해서 맞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참회하고 좋은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최선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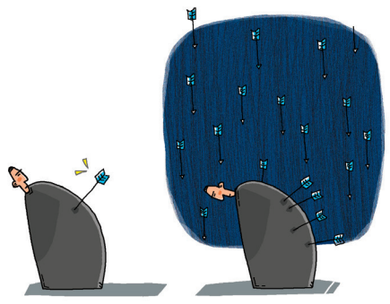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필 내가 왜 불행의 화살을 맞았을까'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에 집착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실수와 잘못과 불행으로 뭉쳐진 불행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발전도 없을뿐더러 또 다른 화살을 맞게 됩니다. 첫 번째 화살은 모르고 맞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초하여 두 번째 화살을 맞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화살을 맞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비관적이며, 자신의 삶을 낙오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처럼 역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분석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누르고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와 낙관적인 자세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낙관적이기에 고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지금 첫 번째 화살을 맞고 고통 속에 있나요? 불행한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된 생각으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밝은 미래와 어두운 미래,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서 두 번째 화살을 맞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에 맡기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법계도 왜곡 가톨릭, 잘못 인정하라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 이하 법계도)는 통일신라 의상 스님이 방대한 〈화엄경〉의 요지를 210자로 응축하고 54각(角)이 있는 도인(圖印)을 합쳐 만든 것이다. 이 같은 법계도가 최근 가톨릭에 의해 수난을 겪고 있다.

가톨릭 서울대교구가 운영하는 서소문역사박물관에는 최근까지 법계도를 왜곡한 나전칠화 '일어나 비추어라' 가 전시돼 있었다. 이를 확인한 불교계는 지난 10월부터 철거와 재발 방지 약속,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가톨릭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11월 18일에는 조계종 중앙종회 대표단과 해인사 스님들이 서소문역사박물관과 가톨릭 서울대교구를 방문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가톨릭의 문전박대와 사과 거부 의사였다.

특히, 서소문역사박물관장 신부는 "작가가 왜곡과 도용을 인정하지 않아 사과를 할 수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했고, 배석한 변호사는 초상권 등 법적 문제를 거론했다. 종교인 간의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가톨릭 측은 법계도를 전통문화유산으로 뭉뚱그리며 공공재로 만들려 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법계도는 불교의 성보이고 법구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법계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불교의 성보인 법계도를 왜 가톨릭이 마음대로 가져다가 공공재로, 전통 문양으로 만드는 것인가.

故법정 스님과 故김수환 추기경의 우의는 한국종교계의 귀감이었다. 다종교 사회에서 한국종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줬다. 그 바탕에는 상호 신뢰와 존경이 있었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성당을 찾은 스님들을 문전박대하고 법적 문제부터 운운하는 작금의 한국 가톨릭은 이웃종교에 대한 존경이 과연 있는가? 이를 그들에게 묻고 싶다.

제6대 군종특별교구에 바란다

제6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능원 스님 취임법회가 11월 29일 지상작전사령부 호국선봉사에서 열렸다. 군승 지원 감소와 홍제사 불사 원만 회향 등 산재한 과제 속에 제6대 군종특별교구에 거는 불교계 안팎의 기대가 크다.

먼저 군승 수급 문제는 종단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인식 전환과 스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독려가 필요하다. 출가자 감소가 확연히 드러나는 흐름 속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파송이라는 국가와의 약속과 군포교의 막대한 혜택이 걸린 만큼 군종교구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젊은 스님들이 일선 군법당에서 주지직을 소화하며 다양한 사판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하면 군승요원 충원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예비승려 양성이라는 개념으로 종립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군종사관후보생 양성 전략을 가다듬는다면 장기적인 군승 수급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한해에 군이 필요로 하는 군승의 절대적인 수는 출가자 수보다는 작다. 단기간 젊은 출가자들이 일선 사찰에 부족할지 모르더라도 일반 군대를 가지 않고 군승으로서 일선 군법당에서 포교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군종특별교구는 국방부와의 원할한 조율을 통해 군승 임관과 전역까지의 이른바 군승 활동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군포교는 지역포교와 달리 해당 권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웃종교와 포교전쟁을 하는 이른바 전법 포교의 최전선이다. 불교계와 조계종, 그리고 새롭게 진용을 가다듬는 군종특별교구의 군포교의 막중한 위치를 감안한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을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